

8월을 시원하게 할 그녀들이 온다

팀 해체후 솔로로 나선 현아·'모델돌' 유닛 나인뮤지스A '섹시미'로 맞대결

여름은 섹시 걸 그룹의 계절이라는 명제가 기정사실이 됐지만 올해는 그 공식에서 벗어난 듯하다. '여자친구'나 '구구단' '소나무' 등 신인 걸 그룹이 중심이 돼 섹시보다는 소녀, '핫'보다는 청량한 여름을 선물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은 역시 '썸머 섹시퀸'이 대세다. 폭염속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8월, 진짜 '섹시한 언니'들이 돌아온다.

팀 해체후 솔로로 나선 현아와 '모델돌' 나인뮤지스A가 '섹시미'로 맞대결한다.

가벼운 분위기를 시원하게 날릴 '섹시 광풍'이 가요계에 다시 불 전망이다

◇ '섹시 그 이상', 아이콘의 귀환...현아 'Awesome'

눈빛만으로 좌증을 압도하는 원조 섹시 아이콘 현아(24)가 오늘 다섯 번째 미니앨범 '어썸(Awesome)'으로 컴백한다. '에이 토크(A TALK)' '에이플러스(A+)' 등 매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현아의 A 시리즈다. '어썸'은 꾸준히 섹시함을 어필하며 가요계의 독보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은 현아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할 앨범이다.

특히 올해로 데뷔 10년을 맞은 만큼 작사 등 앨범 제작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섹시함 이상의 내공을 뽐냈다.

특히 지난 6월 소속 그룹 '포미닛'이 해체된 뒤 처음 내는 앨범인데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경영권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혼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매하는 앨범이다.

현아가 섹시 퀸으로서 발휘하는 독보적인 영향력을 과시해야만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타이를 곡 '어때?'는 강렬한 트랩 힙합



'섹시 그 이상', 아이콘 현아(왼쪽)과 '모델돌' 동생라인의 상큼섹시 나인뮤지스A(오른쪽)이 8월 컴백한다.

사운드로 지금을 즐기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앨범이다. '빨개요' '잘 나가서 그래'를 통해 현아와 오래 호흡을 맞춘 작곡가 서재우·빅산초가 만들고, 현아가 직접 가사를 썼다.

◇ '모델돌' 동생라인의 상큼섹시...나인뮤지스A 'MUSES DIARY'

늘씬한 몸매와 성숙한 외모로 '모델돌'이라고 불리며 섹시 카리스마 계보의 대표적인 걸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그룹 '나인

뮤지스'의 동생 라인 네 명이 뭉쳤다. 차세대 섹시 퀸의 자리를 노리는 경리(26)를 중심으로 헤미(25), 금조(24), 소진(25)이 모인 '나인뮤지스A'는 목격한 걸 크러쉬를 내세웠던 나인뮤지스에 비해 소녀감을 더한 한결 가벼운 섹시함을 만나볼 수 있는 유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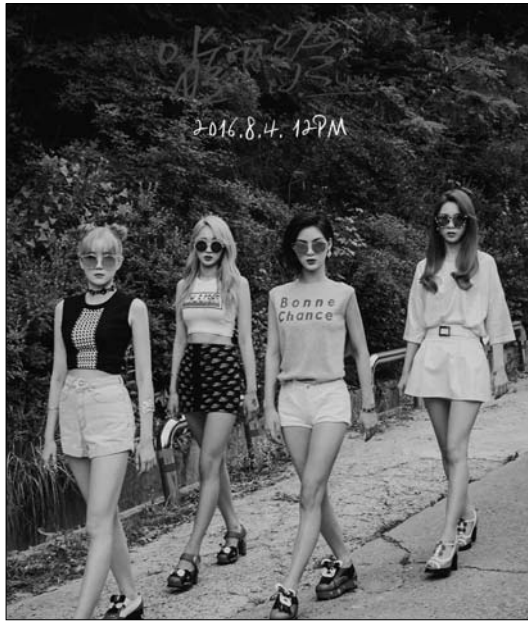
다음달 4일 발표할 '나인뮤지스A'의 첫 번째 싱글 앨범 '뮤지스 다이어리(MUSES DIARY)'는 네 멤버가 전하는 사

랑, 우정, 성장을 담아 한 편의 하이틴 로맨스 영화 같은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앨범이다.

나인뮤지스A 완전체와는 결이 다른 발랄한 섹시함으로 유닛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타이를 곡 '입술에 입술'은 레트로 장르를 기반으로 뉴웨이브와 펠버른 바운스 요소를 가미한 경쾌한 댄스 곡이다.

/김민근 기자



평창조직위, 통신망기반기술지원센터 개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통신망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센터를 열었다.

조직위는 지난달 29일 "안정적인 올림픽 통신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kt 연구개발센터에 기술지원센터(TTC·Telecom Technology Center)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인 kt와 함께 구축한 TTC는 평창올림픽에서 실제 운용될 시스템들을 사전에 테스트하는 공간이다. TTC는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해 해결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위는 올림픽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트레이닝 코스를 개발해 보다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운용할 계획이다.

조직위 여형구 사무총장과 오상진 정보통신국장, kt 오성목 네트워크부부장, 김형준 평창동계올림픽추진단장 등은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뒤 시설들을 둘러봤다.

/김민근 기자



빅뱅, 11월 초 일본 도쿄 돔 공연

그룹 '빅뱅'이 올해도 일본 돔 투어에 나선다.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펼치는 4년 연속 돔 투어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뱅은 오는 11월5~6일 일본 도쿄돔을 시작으로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등 4개 도시에서 모두 13회 공연하며 63만1500여 명을 동원한다.

빅뱅의 일본 공식 팬클럽 VIP 재팬'을 통해 선 예매할 수 있다.

한편 빅뱅은 이에 앞서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오사카 야마 스타디움 나가이에서 16만1500여 명 팬과 함께 하는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빅뱅10 더 콘서트: 제로 투 텐'을 연다.

한정판 포토 북, 멀티 앵글 영상 콘서트, 라이브 CD 등이 포함된 공연 실황 DVD와 블루레이는 오는 11월 2일 출시된다.

/김민근 기자

리우올림픽 출전 역도대표팀 현지 적응 돌입

역도 강국 러시아 등 도핑 문제로 올림픽 출전 못해 손영희 "이번이 기회 차분하게 하면 괜찮을 것"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역도대표팀이 리우 입성 하루 만에 열 틈 없이 다시 바벨을 들기 시작했다.

손영희, 이희술 등 한국 역도대표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후 리우 올림픽 파크 인근의 리오센트로 파빌리온 5에서 본격적인 현지 적응에 돌입했다.

전날 오후에 도착해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됐지만 7명 선수 모두 약 2시간 동안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다.

여자 무제한급에 출전하는 손영희와 이희술은 장미란의 뒤를 이을 재목이지만

현실적으로 입상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역도 강국 러시아를 비롯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도핑 문제로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무제한급 세계랭킹 1위인 러시아의 타티아나 카시리나도 나오지 않아 손영희와 이희술은 강력한 경쟁자를 피하게 됐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자다.

손영희는 "이번이 기회이긴 하다. 주위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을 기회라고들

하시는데 차분하게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

이희술은 "주위에선 기회라고들 하시지만 역도는 결국 올라가서 내 기록을 내야 한다. 기록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환경이 어렵든 우리부터 잘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국제 역도계는 도핑이 최대 화두다. 27일 국제역도연맹(IWF)에 따르면, 런던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 중 11명이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2012 런던올림픽에서 여자부 무제한급에서 동메달을 땀던 흐리프시메 쿠르수디안(아르메니아)의 메달이 박탈됐다. 아쉽게 4위에 만족했던 장미란이

동메달을 수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4위에 올랐던 입정화는 입상 선수의 도핑 소식이 전해져 뒤늦게나마 동메달을 받게 됐다.

한국 역도는 런던올림픽에서 단 한 명의 입상자도 내지 못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장미란과 사재혁이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윤진희가 은메달을 따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내리막길이다. 장미란은 은퇴했고, 사재혁은 불미스러운 일로 웃을 못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역도의 메달을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윤감독은 "역도가 침체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 타까운 면이 있다"며 "반드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민근 기자

'아이오아이' 유연정 합류 '우주소녀' 컴백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IOI)'의 유연정이 정식 멤버로 합류한 그룹 '우주소녀'가 이달 컴백한다.

28일 소속사 스타엔터테인먼트는 우주소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13명 멤버들의 신체 일부가 각각 담긴 티저 이미지와 함께 '#캐미온' '#13시크릿츠' '#201608'이라는 해시태그로 8월 활동을 예고했다.

우주소녀는 지난해 4월 상호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손잡은 스타엔과 중국 위아화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합작 프로젝트로 내놓은 걸그룹이다. 애초 별자리를 모티브로 다국적 멤버 12명으로 구성된 데뷔곡 '모모모모' 활동했으나 최근 유연정이 합류해 13인조로 재편됐다.

유연정은 옛날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해 최종 11인에 발탁되며 스타엔에 온 멤버다.

한편 '아이오아이'는 지난 6월 4일 첫 번째 공식 활동을 마치고 유닛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유연정은 유닛 멤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민근 기자